

# 이낙연 “추석 민심, 더 확실한 혁신과 두터운 포용 요구”

### “민심 정책에 반영...공수처·공정경제3법 처리” “윤리감찰단에 국민·당원 신고 사이트 운영” 지시 “野 국정감사 공세 차단...정부도 잘못 시정하길”

추석 연휴를 마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추석 민심과 관련해 “포용과 혁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나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필수 노동자를 뵈고 말씀을 나눴다. 또한 코로나 같은 감염병의 치료제 백신을 개발하는 한국생명과학 연구원과 세계 최고 수준의 코로나진단키트 기업 SD바이오센서를 찾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과 전국민고용보험 도입같은 포용은 더 두텁게 해야 한다. 동시에 보건·혁신산업

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혁파하는 등 혁신을 더 확실히 해야 한다”며 “더 확실한 혁신과 두터운 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코로나에 갇힌 올해 추석은 예년과 다를 수 없었다”며 “텔레그램에 글을 올려 추석 민심 파악한 것을 올려달라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부탁했다. 그 의견을 취합해 정책에 반영할 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공정경제3법,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온다”며 “그런 여당이나 야당이 아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길이다. 지혜와 용기를 내야한다”고 독려했다. 윤리감찰단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주요 당직자 다주택 보유·비위 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 “최기상 단장이 조사 계획 등을 보고해달라”며 “또한 국민과 당원들이 누구나 윤리감찰단이 조사할 만한 문제를 신고할 수 있게 당에 청렴신고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표는 또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야당의 몫시 거친 공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터무니없는 공세는 사실로 차단하고 근거없는 왜곡도 사실로 교정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상대는 정쟁을 해도 우리는 정적으로, 상대가 공세를 취해도 우리는 민생으로 대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 대해서 “의원의 잘못된 주장은 의연하게 시정하되 정부의 잘못이 있다면 즉각 사과하고 시정해야 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 주문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며 “우리는 미국 대선 이후 한미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문

제에 면밀하게 대처하기 위해 당내에 관련 상임위원회와 외부전문가들로 가칭 한반도TF를 구성해 가동하겠다”고 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새롭게 태어나길”

### “옛 당사에 남기고 오길”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이 여의도로 복귀하며 새 당사를 마련한 데 대해 “새롭게 태어나시라”고 말했다. 박진영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의 새 당사 입주를 축하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부대변인은 “아직도 국정 발목잡기 행태나 일부 극우세력과 절연하지 못하는 점은 파트너로서 안타깝다”며 “야당도 중요한 국정의 동반자이다.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로 문제

인 정부의 성공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 대통령이 성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정에 근거하여 역으로 점수를 따겠다는 값어치 정치는 구 당사에 유물로 남겨두고 오시라. 국민들이 혐오하는 무례한 조롱과 막말도 제발 버리고 오시라”며 “새 당사에서 누가 더 밝은 미래를 열 것인가라는 새로운 정치로 경쟁하자”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18년 11년간 이용해온 여의도동 한양빌딩 당사를 처분하고 영등포동 우성빌딩으로 옮겼다가 2년 만에 여의도동 남중빌딩으로 당사를 다시 옮기고 현판식을 거졌다.

## 이준석 “강경화 남편, 문제 안돼” vs 김남국 “개인 일탈 부적절”

### “방역 관점에서 큰 문제 안돼” “다들 인내...개인일탈 부적절”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 이일병 전 교수가 요트 구입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방역 관점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우리가 방역의 기준을 고민해봐야 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강 장관의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취미가 요트인 건 알겠다. 왜냐하면 예전에 재산 신고한 것을 보면 36억원을 신고하면서 2519만원짜리 요트를

넣었다”며 “그렇다면 이분이 가서 미국에서 격리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격리 기간을 잘 지킨다고 했을 때 이것이 크게 방역 관점에서 문제가 될 만한 일이나”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가) 일반 국민들한테 너무나도 강한 기준을 설정해놓고 그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제 기준 자체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방역 관점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가 자유롭게 한 어떤 행동들이 다른 사람의 건강이나 우리 사회의 감염병 확산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조금씩 인내하고 참는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 K-방역이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개인의 일탈적인 행동 자체가 어떻



국민의힘 이준석 민주당 김남국  
게 보면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강 장관 배우자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바뀐 듯한 모습이 연출되면서 김 의원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입당 원서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으로 입당하시죠”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이에 이 전 최고위원은 “아니, 내가 왜 입당을 해요”라고 웃으며 반박했다.

## 안철수 “文정권, 도덕적 회생 불가...한심한 수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5일 정부를 향해 “우리 국민이 총살되고 불태워졌는데도 ‘실마그렐 줄 몰랐다’는 변명만 늘어놓는다”며 “정녕 우리는 이런 한심한 수준의 정부밖에 가질 수 없는 건가”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겸 제3

차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을 살려내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치공세와 선동으로 매도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 어디에도 국가의 책임과 역할, 대통령의 책무에 대한 고심

과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어려운 국민의 삶을 우선하지 않고 인기영합주의로 돈을 뿌려대는 나라, 고위공직자가 국민의 건강과 가치와 상식을 짓밟는 나라, 국민이 집중사격으로 총 맞고 불태워져 시신이 바다 속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친서 한 장에 감응해서 침묵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과연 제정신이 바른 나라겠냐”라고 주장했다. 뉴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b>기사제보</b> (062) 222-2580	<b>광고문의</b>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